이근후 명예교수는 …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근후 명예교수는 61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73년부터 이화여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89년부터 네팔-이화 의료봉사단 단장을 맡아 30년 넘게 네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95년 사회봉사단체 가족아카데미아를 설립,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 40여 권의 저서가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울 창동 부근에 광명보육원이 있음을 알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연세대 교수로 정년퇴임을 하면서 보육원에 3층짜리 건물을 기증했다. 여기에 '환자를 진료할 때 따지지 마라'는 의미의 이 명예교수의 호 '무하'(無何)를 딴 '무하문화사랑방'을 열고 아이들에게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무하문화사랑방에서는 시인과 화가 등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아이들에게 예술 체험 교육을 시킨다. 아이들이 각종 백일장에 나가 상을 휩쓸 정도로 성과가 좋다고 한다.

"예전 보육원에는 부모가 없어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보육원에는 부모가 있음에도 버림받아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버림받은데 대한 앙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앙심을 청소년기에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에 오래 있었기에 닫힌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감성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술적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2004년부터 네팔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전, 공연 등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시를 올려 청소년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불교사상이 '힐링', 사회 구석 관심 가져야

이 명예교수는 종교계가 나눔과 사회기여에 대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불교 자체가 마음공부이기에 현대인들을 위한 상담활동 등의 개척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불교에는 '힐링' 기능이 큽니다. 예전에는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면 절에서 수행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과 사찰 생활이 하나의 힐링인 것입니다. 불교의례가 힐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려놓음 등 사상이 힐링인 것입니다. 불교에는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정신과 후배들을 보면 기독교 신자인 이들도 불교공부를 많이 합니다. 2000년이 넘는 경험적 지혜에 과학이 문호를 연 것입니다. 불교계도 의례화 되고 있는 불교문화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명예교수는 현대사회가 고통스러운 것은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불자들도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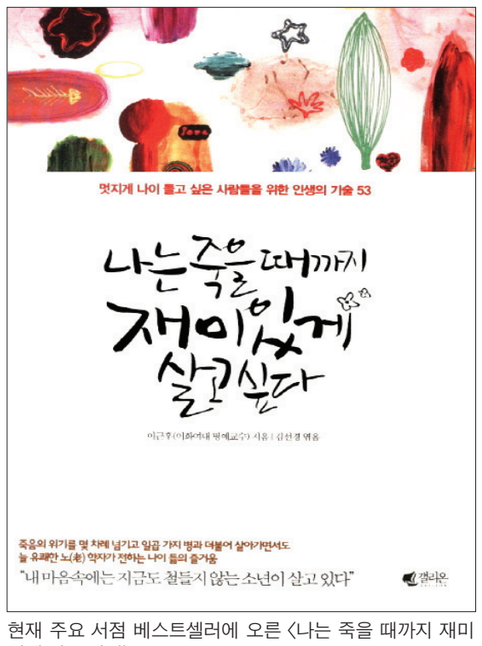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의 경계를 넓히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뼈아프게 자성을 해야 합니다. 자성반조하지 않으면 항상 남의 탓을 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불교 핵심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펴는 어른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 명예교수는 이러한 어른 스님이 있으려면 신도들이 먼저 어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2003년 서울 구기동에 집을 지어 4남매 가족 등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예티의 집'으로 이름 붙여진 이 집의 가훈 중 하나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누면서 항상 이웃과 함께 이를 봉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이다. 이 명예교수는 자녀는 물론 손자들도 모두 네팔에 다녀오도록 했다. 그 이유는 네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삶과 여유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불자들이 나 아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아닐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3년 5월 11일 복지아카데미 특별강연



현재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오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전법일기

청년이 서야 불교가 산다

대한불교 청년회의 위기

큰일이다. 이러다간 완전히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 말이다.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대불청 대구지구 관계자들이 우리절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대구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대구지구 차원의 연합법회는 꿈도 못 꾸고 있고, 지회가 몇 개 있긴 하지만 회원의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젊은이들의 또래문화에서 불교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일부 청년회는 누가 봐도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연령층이 이름을 장악하고 있다.

나는 청년회 출신이다. 출가 전에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와 울산지구에서 신행생활을 했었다. 부산에서 활동했을 때는 매주 정기법회 때 7,80명, 울산에 살았을 때는 매주 3,40명 모이는 법회에 함께 했었다.

법회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단연 곡차 모임이었다. 법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회원들은 단골집에 모여 파전이나 부추전을 앞에 두고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곡차 모임이라고 해서 불교 이야기만 했겠는가. 여느 술자리와 마찬가지로 으레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직장 생활의 애환 같은 게 화제에 오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빠지지 않았다.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 얘기,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 얘기, 남자 여자 모이면 사랑 얘기'라는 말이 있다. 청춘남녀가 모였는데도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년회일수록 회원들끼리 결혼하는 커플이 많았다. 부부 몇 쌍이 탄생했다는 것이 그 청년회의 자랑인 시절이었다. 물론 사랑이 깨지는 날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취를 감추거나 아예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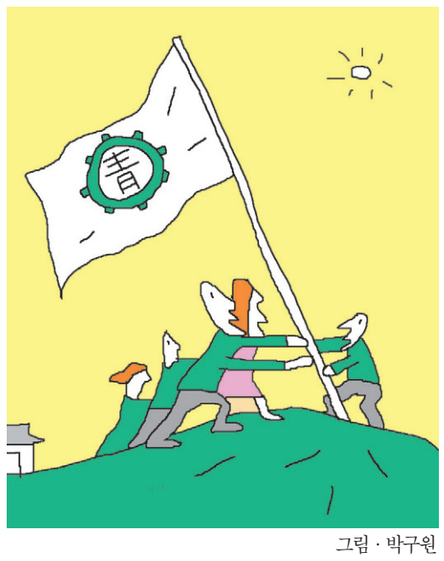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매주 7~80명 모이던 청년 법회
출가자도 나오고 회원끼리 결혼도
명맥 유지하는 대불청에 관심절실

청년회는 때때로 호법신중의 역할도 했다. 타종교에서 '심령대부흥회'를 하면서 불교비방 전문 목회자를 초청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면 회원들이 교회로 몰려가 행사를 저지하기도 했을 정도로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초파일에는 밤을 꼬박 새며 등불을 지켰고, 제등행렬 때 대열의 중심에서 커다란 목탁을 치면서 행렬을 이끌기도 했었다. 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회원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냈다.

청년회 출신 중에는 나처럼 출가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어느 청년회에서 몇 명의 스님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청년회 회원들의 원력과 신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내가 이처럼 길게 청년회 경험을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 절집에 청년회를 다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젊은이들은 '청년이 서야 불교가 산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당시 청년들이 불교의 미래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가 활성화 되면 청년회는 저절로 잘될 것이다. 긴 세월동안 투자하기 어려운 절에서는 일단 청년회를 만들어 미혼 남녀가 모여 함께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절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힘겹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대불청 각 지구와 지회를 위해 사부대중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때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